

정보 무늬(QR코드) 이용 시, 음성으로 보도자료를
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안드로이드



아이폰



보도시점: 2025. 7. 23.(수) 15:00 배포: 2025. 7. 23.(수) 08:30

“탄소중립 시대의 해답 ‘기후테크’” 기업활동의 걸림돌 해소 위한 만남 가져

- 국민권익위, 오늘(23일)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
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

-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오늘(23일)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후테크 기업들과 중소벤처기업부, 경기도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회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녹색 전환을 이끌 핵심 산업인 기후테크 분야 기업들로부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, 인허가, 행정절차 등의 고충을 직접 듣고,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▲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, ▲신기술 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, ▲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재 관련 정책 마련 등 다양한 고충과 건의 사항을 전달하였다.
이어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기후테크 기업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.
- 국민권익위는 오늘 논의된 고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,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

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

-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“기후테크는 국가 생존전략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,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현장고충조사과	책임자	과 장	박근용 (044-200-7831)
		담당자	사무관	장대근 (044-200-7836)
	주무관		박 혁 (044-200-7833)	

